

민주, 힘지에 인재 전진 배치 '총선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오른쪽 네번째)이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두관의원, 김성우 의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학민 전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 황인성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 사무총장, 우원식 의원, 김태연 의원, 남인순 의원. /연합뉴스

정부·학계 출신 전문가 김용진·김학민·황인성 입당식 동부벨트 공략...유능한 정당 이미지 부각 전국정당 의식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적인 '새 패' 수혈로 입지감치 총선 승부수를 띄우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보수세(勢)가 강한 지역에 전직 관료 등을 전면 배치하고, 현직 관료 '차출카드'를 적극 검토하는 등 총선 승리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학민 전 순천향대 산학협력부총장,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입당식을 개최했다. 김 전 차관은 행정고시(30기) 출신으로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대변인, 사회예산심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통'으로, 고향인 경기 이전에 출마할 예정이다. 김 전 부총장

은 충남도청 정책특별보좌관을 맡은 행정·정책 전문가로 충남 홍성·예산 출마를 준비 중이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인 황인성 전 수석은 경남 사천·남해·하동에서 출마 도전장을 낸다. 이들 3명이 출전하는 곳은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진한 지역구다. 민주당이 이날 입당식을 신호탄으로 약세 지역을 집중 공략하기 위한 체비를 갖추는 모양새다. 특히 강원도와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등 이른바 '동부벨트'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총선 승리를 물론, 명실공히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려는 의지가 깔렸다. 실제 민주당은 정부·학계 출신의 전문가

그들을 이 지역에 전진 배치해 '유능한 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내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펴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민주당은 협치출마 인재들을 부각하는 이런 포맷의 후속 행사를 시리프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행사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으로 인재 영입 결과를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현직 관료들을 향해서도 '러브콜'도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다. 강경화(서울, 이하 출신지)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경남 진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현직 장관·차관 10여명이 그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흉남기(강원 춘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대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차출설도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당초 불출마 의사를 밝힌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의 계속되는 설득에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30 청년 인재들의 영입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당장 총선기획단의 미래기획분과에 소속된 김태성·세운경 의원은 최근 이해찬 대표에게 청년 인재 영입을 발굴해 추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개별 의원들의 '인재 발굴' 작업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인재 추천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 우세지역을 지역구로 둔 중진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목소리, '86그룹' 역할론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인영 원내대표의 경우, 충북 충주 출마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패트 충돌' 고발 201일 만에...나경원 검찰 출석

민주 "엄중한 조사·처벌 있어야...패트 법안 일정대로 처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13일 여여 간에 뚜렷한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조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야당 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

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4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것에 대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발된 지 무려 200일만이다. 그간 소환에 불응해 온 한국당 의원들은 불법과 폭력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법을 기만해왔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한국당 모든 의원·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한국당 재선의원들의 '의원 총사퇴' 건의에 힘입어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의 합의처리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원내대표-중진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당 대표와 회동에서 남 얘기하듯 '선거법이 국회서 잘 처리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제라도 합의처리를 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

정우택 의원은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잔꾀가 있어서 안된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 문제(패스트트랙 충돌)는 불법 사보임에서 문제가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한 의원들의 투쟁이었다고 본다"며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뤄졌음을 거듭 주장했다. 팍팍한 대치국면 속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14일로 예정된 검찰개혁법안 관련 실무진 회동을 통해 접점 모색에 나선다. 또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려는 계획이 현실화하면, 이를 계기로 난국을 타개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당 '쇄신 목소리'

초·재선, 거취 백지위임...중진의원들 협치 출마 요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 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간의 보수 대통합 움직임이 표면화한 이후 한국당 내 쇄신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김태흠 의원이 지난 5일 '영남권·강남 3구 중진 옹퇴 및 협치 출마'를 공개 요구하고, 조선인 유민봉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6선의 김무성 의원까지 총선 불출마 입장을 재확인 했다. 재선의원 19명도 지난 12일 긴급 조찬간담회를 열어 지도부에 공천 관련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조선의원 25명은 전·현직 지도부와 대권후보군,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협치 출마'를 요구하는 한편 자신들의 거취를 '백지위임'한 바 있다. 당 안팎에서 잇따르는 옹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진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초재선 의원들이 '공천 백지 위임'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도권·충청권 원외 당협위원장 10여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선 의원들과 중진 지도자들은 그동안 누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당후사 정신으로 협치를 개혁해달라"며 "아울러 당 지도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물을 조속히 확정해 공개해달라. 모든 후보자들도 이를 존중하고 어떤 결정에도 승복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한동안 잠적했던 당내 쇄신 요구가 분출한 이면에는 변혁 측과의 보수통합 논의가 빠적대는 데 따른 압박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과 쇄신의 바위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보수통합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선거를 앞둔 아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황 대표 등 지도부가 당내에서 분출하는 쇄신 요구를 어떤 방식이나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與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한국당 빠진 의원 157명 결의안 공동 발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국회의원 157명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13일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김한정·신동근·오영훈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결의안을 공개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북한이 남북 간 대화와 협의를 적극 나서야 하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원식 의원은 "본회의에 결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157명이 참여한 만큼 상징만 하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제재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과감하게 한미 간 고위급 채널과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가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128명, 바른미래당 5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5명, 대안신당 9명,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무소속 김경진·손금주·손혜원 의원이 서명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 통과

36개월 교도소 등 합숙복무 그대로 유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큰 틀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유지했다. 최대 징점이던 대체복무의 기간과 대체복무 시설은 각각 '36개월',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 등으로 했고, 복무 형태 또한 원안의 '합숙'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방부가 아닌 병무청 소속으로 하기로 수정했다. 대체복무가 병무청의 고유 업무라는 일차원 견해에 따른 것이다. 당초 원안에 위원회의 임무로 규정된 '재심' 기능도 삭제돼 통과됐다. 재심까지 담당하면 위원회 조직이 비대화할 수 있다는 우려, 재심 기능은 소송 등 사법부를 통하면 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다. 법안은 오는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건물**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 건물** 광주 남구 주월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306㎡(64.61평) 건물 : 494.4㎡(149.56평) 지상4층 **매매가 9억3천만**원 삼육고 인근 푸른길도서관 앞 공실없음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광주 광산구 고동동 토지 : 1705.3㎡(515.9평) 건물 : 1358.46㎡(410.9평) 감정가 13억1천2백만원 최저가 (70%) 9억1천8백5십만원
- 주 택** 광주 북구 장등동 41번지 토지 : 598㎡(180.9평) 건물 : 263.04㎡(79.6평) 지상3층 감정가 4억7천8백만원 최저가 3억3천5백만원
-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7번지 토지 : 337.476(102.089평) 건물 : 298.282㎡(90.23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 3천2백3십만원
-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6-26 토지 : 354.615㎡(107.271평) 건물 : 329.717㎡(99.739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2천6백5십만원
- 아 파트** 광주 서구 쌍촌동 푸르지오 47평형 감정가 7억2천1백만원 최저가 5억4백7십만원
- 아 파트** 광주 남구 봉선동 더설2단지 54평형 감정가 11억2천6백만원 최저가 7억8천8백만원
- 아 파트** 광주 북구 용봉동 쌍용에가 54평형 감정가 5억6천만원 최저가 3억9천2백만원
- 아 파트**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2차 56평형 감정가 5억3천만원 최저가 3억7천1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